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실천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지위와 명분에 알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正名] 한다.
- ③ 윤회를 완전히 끊어 내려면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
- ④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⑤ 사단(四端)을 확충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求放心] 한다.

2.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가지고 일해야 할 수단이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일은 그가 주목하는 목적이다. 어떤 쾌락과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을: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 하나가 양에 있어서 더 많은 불만족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선호한다면, 그 쾌락은 질적인 우월성을 지닌다.

- ① 갑: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 ② 갑: 고통을 동반한 어떤 행위도 공리 증진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쾌락의 양을 늘리는 행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는 없다.
- ④ 을: 질이 낮은 쾌락을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공동체의 이익과 그 구성원 이익의 총합이 같을 수는 없다.

3.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고 쓸 수 있게 된다.
(나)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① (가): 생산 수단의 공유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 ② (가):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노동은 그 자체로 욕구의 대상이 된다.
- ③ (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특정 계급의 독재를 허용해야 한다.
- ④ (나):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 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4.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을 향한 욕구를 버리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 중 무엇이 자연에 일치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을: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 추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가짐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곧 참된 쾌락이며, 이는 방탕한 자들의 쾌락과는 다르다.

- ① 갑: 공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② 갑: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 ③ 을: 사려 깊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 ④ 을: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쾌락이다.
- ⑤ 갑과 을: 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5.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을: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정치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 ① 갑: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지닌다.
- ② 갑: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다.
- ③ 을: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을: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 ⑤ 갑과 을: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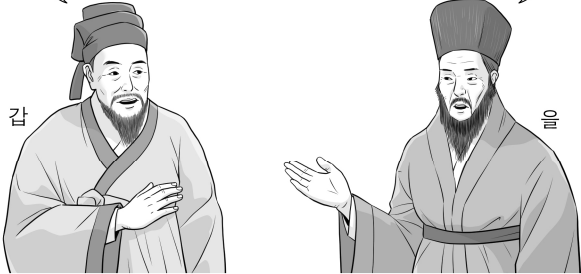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니, 마음은 성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치를 탐구(窮理)하여 격물(格物)하면, 성은 본래 그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달리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본체는 일어남도 없고 일어나지 않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생각이 생길 수는 있어도 양지(良知)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간혹 마음을 놓아 버리는 때가 있을 뿐입니다.



- ① 갑: 악(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성이 아니라 기질에 있다.
- ② 갑: 본연의 성은 치지(致知) 수양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 ③ 을: 양지를 발휘하면 사려하지 않고 사물 속 이치를 알 수 있다.
- ④ 을: 격물 공부를 통해 비로소 양지가 천리(天理)를 갖출 수 있다.
- ⑤ 갑과 을: 마음을 보존하는 일보다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을: 이성만으로 덕과 부덕은 발견될 수 없고, 덕과 부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① 갑: 정념은 필연성 밖에 있기에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 ② 갑: 모든 양태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파괴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 ③ 을: 공감은 행위에 내재하는 선악의 속성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 ④ 을: 이성만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
- ⑤ 갑과 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네가 지난 편지에서 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네. 유학의 큰 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네. 아버이는 아버지로 섬기고, 귀한 이는 높이며, 어른은 어른으로 공경하고, 어진 이는 어질게 여기는 것, 이 네 가지가 곧 인의예지(仁義禮智)라 할 것이네. 이 가운데 내가 새삼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일세. 지란 사람을 보고 그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려낼 줄 아는 데에 있다네. 자네는 부디 이 뜻을 잊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을 확충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시게.

- ① 사람에게는 인의 덕이 내재하므로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다.
- ② 의와 불의 중에 택하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權]이 아니다.
- ③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 ④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私欲)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⑤ 형구(形軀)의 기호만 지닌 존재는 어떠한 선(善)도 욕구할 수 없다.

9.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일체가 공(空)하지 않다면 세계는 생겨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변화하지도 않아 갖가지 양상이 없게 된다. 자성(自性)을 전제로 한다면 괴로움을 끝내는 일도 번뇌를 단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을: 일체는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모든 식이 변하여 전환되면[轉變] 분별하는 것[分別]과 분별되는 것[所分別]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체는 오직 식일 뿐이고 밖에는 현상이 있을 수 없다.

- ① 갑: 공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므로 중도(中道)라 할 수 없다.
- ② 갑: 모든 것은 연기(緣起)에 따라 생겨나므로 자성이 있을 수 없다.
- ③ 을: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다.
- ④ 을: 삼독(三毒)의 제거를 위해서는 일체의 식마저도 제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삼학(三學)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만이 불성을 지닌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개별 이익들의 대립이 사회의 설립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별 이익들의 일치이다. 사회는 오직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 ①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한다.
- ② 주권이 대표 불가능한 이유와 양도 불가능한 이유는 다르다.
- ③ 사회 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다.
- ④ 주권은 양도될 수 없기에 주권자만이 법의 정당한 집행자이다.
- ⑤ 사회 계약으로 수립된 주권도 공동 이익의 침해를 의도할 수 있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스스로 확립됩니다. 모든 사람은 도덕 감정에 기초한 정의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다른 어느 계급과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없고 자신이 그런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 ① 이기심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리이다.
- ②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정부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 ③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법적 체계 없이도 수립될 수 있다.
- ④ 자유 시장 경제에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최고선인 신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신에 의하여 신을 위해 기뻐하고, 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 밖에는 어떠한 행복도 없다.
 을: 현세의 행복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초자연적 목적인 내세의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학적 덕이 주입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ㄴ. 갑: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로 인해 죄악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을: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없이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ㄹ.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희망 없는 깊은 슬픔과 불행이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 갔음에도, 이 사람이 죽음을 원하면서도 영혼의 힘이 강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자. 이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또는 경향성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러하다면, 그의 준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①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② 의욕의 주관적 원리 가운데 어떤 것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③ 정언 명령만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항상 일치하는 존재만이 자율적일 수 있다.
- ⑤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의 선택에 있다.

1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것에 얹어 더해져야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덕은 영혼 속에 있는 유익한 것이므로, 일종의 얹어주어야만 한다. 이 얹어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p> <p>을: 우리가 각자 지각하는 바가 곧 진리이다. 왜냐하면 얹어 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각하는 바도, 내가 지각하는 바도 모두 각각 진리이다. 결국 우리는 각자 만물의 척도이다.</p>
(나)	

<보 기>

ㄱ. A: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ㄴ. B: 악덕한 사람은 악행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람인가?
 ㄷ. B: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ㄹ. C: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는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비록 마른 나무와 식은 재의 기(氣)는 살아 있는 나무와 불의 기가 아니지만, 그 이(理)는 같다. 물(物)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기의 국함[局]이요, 이가 기와 섞이지 않는 것은 이의 통함[通] 때문이다.
 을: 고요함[靜]의 수양이란 마른 나무와 식은 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경(敬)을 지키는 것이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여 이와 기의 발함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 ① 갑: 이는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두루 통한다.
- ② 갑: 칠정 중 선한 부분의 정(情)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다.
- ③ 을: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乘]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
- ④ 을: 마음의 흐트러진 기는 경을 통해 성(性)과 분리해야만 한다.
- ⑤ 갑과 을: 사단이나 칠정은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發]될 수 있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품성적 덕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다. 이 올바른 이성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품성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 ① 품성적 덕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이다.
- ② 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면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일 수는 없다.
- ③ 부정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뿐이다.
- ④ 용기의 덕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하는 품성적 덕이다.
- 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기도 하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 절망해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이다. 이처럼 절망하는 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을: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그 본질은 제작자의 구상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다르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 ① 갑: 주관적 진리는 편견일 뿐이므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양심에 따라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유한성을 극복한다.
- ③ 을: 주체적으로 자유를 결단한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 ④ 을: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 없기에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자유로운 선택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은 필연적이지 않다.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 기교를 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을: 진인(眞人)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뿔내지 않으며 세속적인 일을 미리 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① 갑: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난다.
- ② 갑: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 ③ 을: 개별 사물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두가 평등하다.
- ④ 을: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절대적 근원이 있다.
- ⑤ 갑과 을: 무욕에서 벗어나 무위를 실천해야 자연과 하나가 된다.

19.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굵은 나무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곧아진다.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닦은 연후라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性)이 선해지는 것은 작위(僞) 때문이 아니겠는가?</p> <p>을: 우산(牛山)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날마다 나무를 베어 가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산의 본성이겠는가? 이처럼 어찌 사람의 본성에도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p>
(나)	

<보 기>

ㄱ. A: 도덕의 근거를 하늘[天]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된다.

ㄴ. B: 이기적인 욕망의 극복을 위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ㄷ. B: 군주는 백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ㄹ. C: 이상적 정치는 어진 마음이 아니라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초상화가 교역 과정에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의는 사라지고 사람은 금수(禽獸)가 될 것이다.

을: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된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는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다.

- ① 갑: 부국강병을 위해 절의(節義)가 아니라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서학(西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대동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한울님을 모시는[侍天主] 마음으로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을: 백성이 편안한 이상 사회를 내세(來世)에서 실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성리학적 가치를 수호하여 신분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